



MBC + 장익선 ·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서양 미술 속 빛과 색

시각화 과정

우리는 지난 4개월에 걸쳐 빛과 색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발견하고, 수집 · 분류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시각화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나리오나 콘셉트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과 이미지로 TV 프레임 안에서 실제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 역사 속 미술 사조에 대한 이해와 유명 화가의 작품 세계 분석과 인식 과정들을 살짝 엿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이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이고, 더불어 크리에이터가 되어 하는 영상 및 조명 스태프들에게는 비주얼과 내러티브, 아트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자 탄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시각화 과정

시각화 과정의 시작은 연출자가 내러티브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출자들은 그들의 연출 의지와 기획에 따른 프로세싱에 있어 특정한 부분에 힘을 싣게 되는데, 시나리오, 배우의 연기, 미술, 촬영, 조명, 음악, 편집 등 내러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들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내러티브를 시각적으로 창조해낸다.

과정에 있어 연출자가 영상미에 보다 중점을 둘 때, 조명은 시각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훌륭한 시각화는 탄탄한 내러티브에게는 보다 돋보이는 영상이 되도록, 다소 빈약한 내러티브에는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토록 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훌륭한 시각화란 무엇일까? 물론, 훌륭한 시각화는 연출자의 의도와 의지를 잘 반영하며, 시나리오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상의 것으로 재창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각화의 과정을 위해 우리가 지난 4개월 간 해왔던 작업, 아니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작업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재창조된 여러 작품들을 알아본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픽션을 배경으로 태어난 작품으로 사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요하네스 안 베르메르'의 대표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일화는 곧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다. 2003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1660년대 주인공 소녀의 삶과 사랑을 그리기 위해 30여점 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유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각화 요소들을 찾아, 복원해내려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텔미쌌딩/캄비세스 왕의 재판

"<캄비세스 왕의 재판>은 <텔미쌌딩>을 만든 중요한 모티브이다. 처음엔 가족을 버기는 엽기적인 모습에만 시선이 집중됐는데 차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림에서 발전했다. 이 잔인한 광경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는 자의 모습에 무감각한 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의 그림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꼬집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텔미쌌딩도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한다.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소년은 이 그림의 시점을 규정하는 인물이다. 승민이란 캐릭터는 여기서 나왔다." - 장윤현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시각화는 이러한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다. 영화를 만들
게 된 모티브는 영화의 미장센과 조명의 질, 분위기, 시선
및 원근법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

영화 <드라큐라,1992>에서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은
이 작품을 이용하여 드라큐라 저택 내부 벽면에 걸린 드
라큐라 백작의 초상화로 이 작품을 사용했다고 한다. 주
인공인 게리 올드만의 모습과 그의 모습이 무척 비슷함을
느낄 수 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싸이코(1960)

현대 미국인들의 적막한 내면을 잘 표현한 작가인 에드워
드 호퍼의 그림들이 지니는 심리적, 심미적 요소들은 알
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싸이코>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영화의 촬영장소로 사용된 곳이 바로 호퍼의 그
림인 "Haus by the Railroad"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
은 바로 그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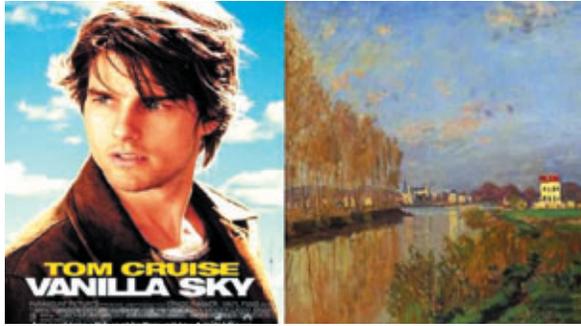


올드보이

"웃어라, 온 세상이 함께 웃어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 오대수의 대사 중에서

그의 대사와 함께 화면에 구성된 그림이 바로 포스터 옆
의 그림이다. 이 그림은 화가 스스로 위기가 닥쳤을 때
완성됐다고 한다. 이 그림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남자
의 모습을 리얼하고도 기묘하게 표현하였는데, 바로 저
모습이 주인공 오대수의 모습이 아닐까?





바닐라 스카이

'모네'의 작품명이기도 하며, 원 의미는 '보기 드물지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늘풍경'을 뜻 한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감독인 카메론 크로우는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주인공인 톰크루즈가 가졌던 환상이라고 의미화 했던 것 같다. <Open your eyes>라는 획기적이고도 강렬했던 영화를 리메이크 했을 때 제목까지도 바꿀 만큼 모네의 작품은 감독에게 큰 의미였던 것 같다.

거울 속으로

<거울속으로>라는 영화에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가 '유지태'에게 거울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다. 영화 속에서는 공간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며, 영화의 플롯을 잡아나가고 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의 원근법적 소실점에 존재하는 거울에 바로 이러한 실마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거울은 원근법적인 측면에서는 무한한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의 이면에는 결혼의 정절과 신성함이 결여되어 있는 결혼의 허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영상이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위기의 주부들> 오픈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대상이나 이미지는 영상디자인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러티브에 맞게 상징화 또는 은유화 되어 재창조 된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나 대상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검증을 받거나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지난 4개월 간 소개했던 미술 작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창조적인 여러분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다음 시간에는 필자가 '꿈을 만드는 미디어아티스트 정연두' 작가를 만나서 보고, 들은 즐거운 시간을 글로 담아내며 6개월의 연재를 마치려 한다.